

활력공감 | 함께 뛰는 상하수도인 지자체회원

성주 참외보다 더 맛깔스러운 물을 위해

성주군청 환경보호과

함천군과 경계를 둔 성주군은 높이 1,433m의 가야산을 품에 안고 있다. 그 웅장함과 넉넉함이 바람과 비를 막아주어 일 년 내내 온순한 기온 속에서 살아간다는 성주는 자연이 선사해준 혜택을 누리며 청정함을 소중히 지켜가고 있다.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나로, 환경보호과

성주군의 동쪽으로는 압록강 다음으로 제일 크다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남서쪽으로는 소백산맥의 줄기에서 갈라진 가야산이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듯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자연과 하나 된 모습의 성주는 생산되는 작물 또한 그 맛이 일품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주 참외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이토록 우수한 품질의 참외가 생산되는 비결을 살펴보면 성주군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성주군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 환경미화, 환경지도와 상수도, 하수도 등 다섯 개로 관리 분야가 나뉘어 있고 총 35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물관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환경 업무도 모두 총괄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지요.”

환경보호과 최종관 과장은 상수도과 하수도 관리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환경보호과의 업무 특성을 소개하며 ‘개발과 보존’의 경계 속에서 한 순간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약 10km에 걸쳐 낙동강이 성주를 지나 흘러갑니다. 때문에 반경 20km 내외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개발의 저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환경보호과 역시 청정 지역을 수호해야 할 책임감과 지역 개발을 바라는 성주 주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주어야 할 의무감을 잘 조화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및 관리 실태 평가가 실시되었다. 성주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되리라 자신하고 있다. 3시간을 넘게 꼼꼼히 살펴보는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사실은 평소에 얼마나 철저히 관리되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가천정수장을 방문하면서 그러한 자신감이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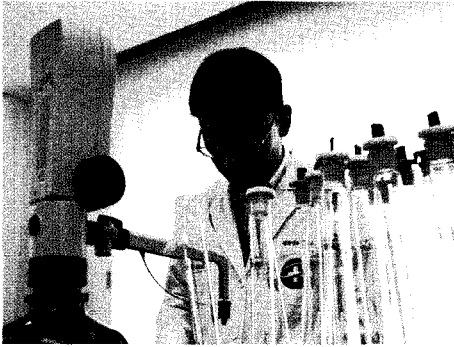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지난 2005년 군 단위로는 적지 않은 50억 원의 예산과 추가로 도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초현대식 정수장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되었지만 준공 당시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최신

이창우(李昌雨) 성주군수님은 평소 군청 직원들에게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을 자주 들려주십니다. 남보다 조금만 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일이든 좋은 결과가 올 것이란 믿음을 전해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 역시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금 더’ 발로 뛰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성주군 환경보호과 최종관 과장



식 실험실과 관리시스템을 들여와 타 지역의 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수도 담당인 도명록 계장은 성주군의 상수도 분야의 핵심 역량은 바로 가천정수장 건립에서 볼 수 있듯 과감한 예산 투자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라고 손꼽는다.

2010년 약 1만 5천 톤의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2009년에도 새롭게 수립한 수도정비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갈 예정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주군 전역에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수수 시설 설치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성주군의 급수율을 보면 34%로 낮은 편인데, 이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254개의 마을상수도를 제외하고 단순히 읍 지역 인구 비율로 따져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민 대부분이 소규모 수도시설 및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수질오염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환경보호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 사업이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한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은 대구시에 공급되는 물을 성주군 전역에 똑같이 공급하여 주민들이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명록 계장은 이를 위해 올해 월항과 용암 지역을 시작으로 2010년 전남 지역까지 지방상수도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1년 정도에는 급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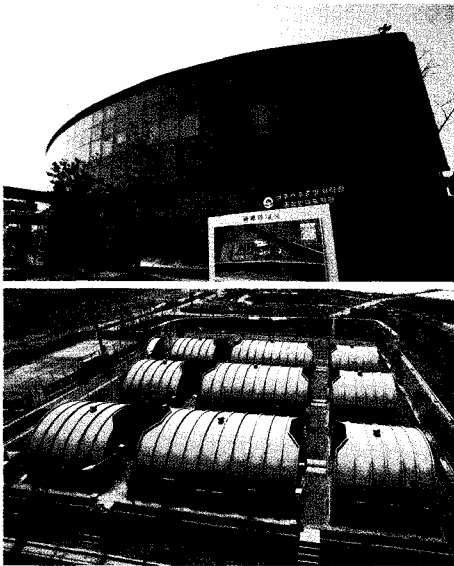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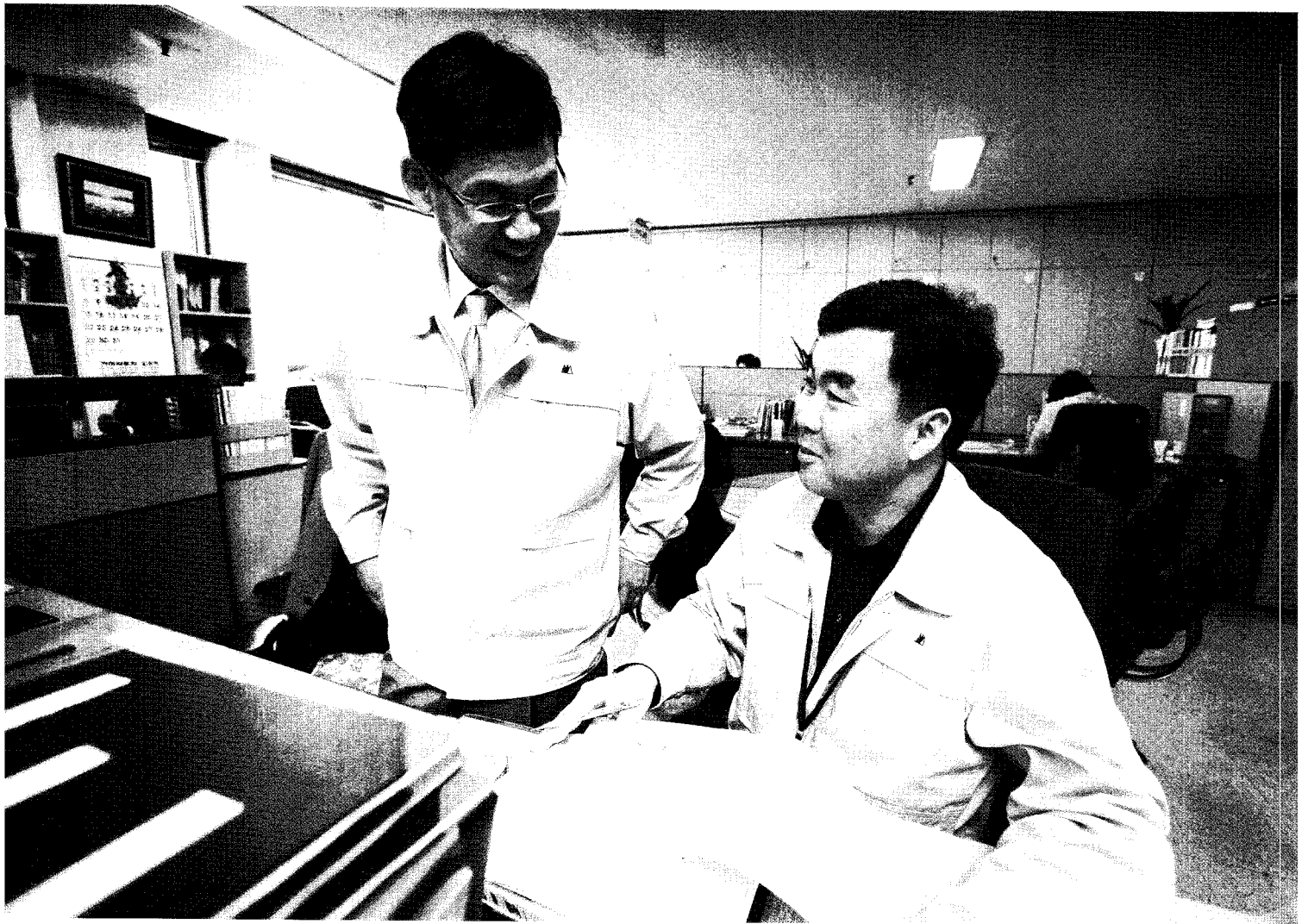
물 관리를 위한 성주군의 과감한 예산 투자는 상수도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농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수도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까지 161억 원을 투자하여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정비해 오고 있는 성주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9년에 들어서 2011년까지 총 4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입니다. 이로써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켜 인근 하천의 수질 개선으로 수생태 보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담당 우한상 계장은 지난해 마을하수도 사업에 38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처리장 확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운영에 4억 8천만 원, 성주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 원, 하수구 뚜껑 및 노후 맨홀 정비에 1억 5천만 원 등 투자 내역을 꼼꼼히 보여주었다. 또한 효율적인 하수관거 유지관리로 방류 수역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고, 특히 지난해 준공한 성주하수처리장에 마련된 주민 편의시설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연중 개방하고 있는 성주하수처리장에는 연간 600여 명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등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마련된 견학 프로그램에 따라 물이용에 대한 시설을





성주군청 환경보호과의 모든 임직원은 단결력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견학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하수관로를 통해 처리장을 거쳐 맑고 깨끗한 물로 재생되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쓰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물을 아껴 쓰는 등 생활 습관까지 바뀌는 큰 학습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보통 혐오시설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장소 유치부터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 마련이다. 성주하수처리장 역시 이러한 예외사항을 겪었다. 공사를 시작하고 터파기 때에는 주변 노후 가옥의 담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많은 민원사항을 접수받기도 했다. 하지만 준공된 이후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하수처리장 내에 마련된 풋살 경기장은 주말이면 예약하지 않고서는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조성한 인공연못은 가족 단위의 산책로로 제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낙동강 수계에 있는 지방2급 하천인 백천과 이천 주변에 있는 농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보다 나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다.

“머물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 물맛 보셨나요? 아주 일품입니다. 이런 좋은 혜택을 성주군의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바람입니다.”

이렇듯 적은 인원으로도 큰 단결력을 보이고, 때로는 과감한 실천력으로 굼직굼직한 상하수도 관리 사업들을 척척 해내는 성주군청 환경보호과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가 아닐까. ☺